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기업에서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 자재를 가리킨다. 기업소모성자재 또는 기업운영자재라고도 한다.

필기구부터 복사용지·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이 대표적이며, 청소용품과 각종 설비나 장비를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공구, 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소모성 자재는 일반 기업들이 관리하려면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행하는 전문업체를 MRO 기업이라 한다.

그랜드슬램 [ Grand Slam ]

그랜드슬램은 원래 카드놀이인 브리지게임에서 패13장 전부를 따는 압승'을 뜻하는 용어에서 나왔다. 골프와 테니스의 경우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것을 의미하며 야구에서는 만루홈런을 지칭한다. 테니스에서는 한해에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한 경우만 그랜드슬램으로 인정하지만 골프는 여러해에 걸쳐 석권해도 그랜드슬래머로 불린다.

갈라(Gala)공연

갈라 공연이란 주연급이 출연해 각 작품 중 주요장면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를 가리킨다. 원래 갈라(Gala)는 라틴어에 근원을 둔 단어로서 '축제'를 뜻하지만 국내에서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뮤지컬, 발레 등에서 핵심장면만 보여주는 공연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베이킹아웃 [ Bake-Out ]

새집증후군 퇴치 기법 중 하나이다. 실내 온도를 30~40도 이상으로 높여 벽이나 바닥 등에 스며있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인체 유해물질의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환기를 통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 내는 것이다. 한편, 신축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베이킹아웃을 실시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파랑새 증후군 [ Bluebird Syndrome ]

벨기에의 작가 마테를링크의 동화 <파랑새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계획과 희망으로 장래의 행복만을 몽상하면서 현재의 할 일에 정열을 느끼지 않는 증후.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모습에 비유하여, 주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더 이상적인 일을 찾아 정착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표현한 말.

IPTV(인터넷TV)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V)의 약자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TV이다. 셋톱박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PC모니터가 아닌 TV에 연결,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다. 기존의 지상파방송처럼 편성에 따른 생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하듯, 주문형 비디오(VOD) 등을 골라서 볼 수도 있다.

워크아웃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사업영역과 서비스 확장 차원에서 추진한 IPTV는 통신이나, 방송이냐는 규정을 놓고 부처간, 업계간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IPTV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케이블TV와 같은 방송 영역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보통신부는 IPTV를 "기술 발전에 힘입은 확장된 통신서비스"라고 보고 있다.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14일, IPTV를 'COD(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수정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 사정에 따라 구제불능의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정상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을 확실하게 회생시키는 것이 워크아웃의 취지다.

그룹 내의 퇴출기업 결정과 상호자금보증 해소, 부실규모에 따른 감자(減資)와 부채감면 등 기업소유주 및 금융기관간 손실부담비율 결정, 부채 구조조정, 대출금 출자전환, 자산매각, 주력기업 선정 및 영업전략 수립, 대내외 투자자의 신규 투자자금 유입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담당한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의 협의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워크아웃'이란 용어는 원래 제인 폰다를 비롯한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만든 신조어인데 체중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계획된 훈련을 의미했다.

80년대 말 미국 GE의 잭 웰치 회장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용어로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퇴출을 뜻하는 아웃(out)이란 단어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연상된다하여 98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을 「기업개선작업」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G세대

푸른색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Global)의 영어 첫 문자에서 따온 G세대는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세계화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 용어.그린(Green)은 또 '환경세대'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도 지닌다.

최신유행 패션숍이나 유흥가를 주도한 기존의 X세대와는 달리 G세대는 환경운동·반핵평화포럼 등과 같은 곳을 활동무대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펴는 매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젊은이의 건강한 세계관을 강조한 개념이다. 각종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이들도 대표적인 G세대이다.G세대의 또다른 특징은 세계화했다는 것. 기성세대가 갖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한국적인 것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